

열므나의 비유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강화 중에서 열므나의 비유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강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바로 몇일 전에 예리고의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 하시기 까지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

결혼 예복을 입고 앉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같이 읽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누가복음 19 :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누가복음 19 : 13 그 중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 : 14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19 :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누가복음 19 : 16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누가복음 19 :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 : 18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누가복음 19 :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 : 20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누가복음 19 :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누가복음 19 :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누가복음 19 :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누가복음 19 :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누가복음 19 : 25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누가복음 19 : 26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 : 27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실 때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왕됨을 선포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제 곧 다가 오는가보다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천국 바유에는 예수님은 세가지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해야할 일이 남아 있다.
3.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승리 즉 주권의 회복의 날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날로 임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가면서 원문 contxt 에 충실하면서 현대적 의미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I.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나?

누가복음 19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로 군중들이
들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권을 되찾고 신정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교황이 전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믿습니다. 또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Local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나라도, 교황이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그런 교회도, 각 지역에 산재한 로컬
교회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를 바로 이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각자에게 맡기우신
사명도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나 교황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임이 역사적으로
확증되었으니까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현재의 로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다시 말하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하는 것을 공부 하십시오.

이것을 공부함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두가지를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전제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잠이 덜 깬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는 physical 한 것에 강세를 두느냐? Spiritual 것이 실체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차적으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Community 와도 떼어 수 없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민족들의 공동체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Christian 공동체, Christian Community 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둔 공동체, 교회와 떼어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를 잡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들어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들어 간다’, entering 의 말이 장소를 의미하느냐 하는 말입니다(마 23:13; 눅 11:52).

우리 먼저 해당 구절을 하나 찾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 : 1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들어간다’ 는 이 말이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까?

들어 간다고 했으니까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들어 간다는 말을 장소로 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community 로 들어 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대적 용법이나 예수님의 용법과 일치한다고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안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community 와도 떼어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 :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 :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대두되는, 마지막 때에 있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점은

천국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다시 말하면 community 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로 선다!

이 구절을 잘 살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로칼 교회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칼 교회는 천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로칼 교회는 선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를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인과 불신자는 추려져서 풀무불에 던져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 교회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로칼 교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나라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만이 할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로칼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좋은 고기를 많이 그물에 담아라’ 이것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community 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II. 다음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제나 한번은 꼭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원하고 또 환경이 원하여 사회적 환경이 그 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주권을 회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19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에 반대되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지 않는다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 :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구절에서 긴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먼 나라로 갈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길 기대했지만 긴 시간이 걸린다 . 이런 해석은 마태 복음의 탈란트의 비유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 :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마태복음 25 :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 왔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깔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그런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 주시지 않자 폭도로 변하여 십자가에 못뺀다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 상념에 사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리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II. 다음에 우리 13 절을 공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 : 13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맡기어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명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개인에게 맡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 보면 주인이 자본을 주고 그것을 씨앗 삼아 장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사할 밀천도 왕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수확을 거두라는 말입니까?

육으로 열심히 해서 영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입니까?

땅의 것으로 열심히 해서 하늘 것을 거두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받아 주인이 주는 능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 :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육으로 행해서 영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주님의 일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경우,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은 quality 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 :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 25 :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 :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 25 :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섯 달란트 남긴자나 두 달란트 남긴 자나 모두가 동일한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서 얻었습니다.

만약 누가 자기의 능력으로 열나만큼의 수확을 거두었다 하면, 많이 거둔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기대를 해도 마땅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거둔자는 적은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할일을 했습니다!’ 하며 겸손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됩니다.

IV.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은 중은 생략하기로 하고 맨 마지막 구절을 공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 : 27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과 11 절을 비교하여 두 구절의 연관성을 말해 보세요.

누가복음 19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1 절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기야가 와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모든 원수들을 자기들의 무릎아래 굴복시키고, 해방과 승리가 선포되는 날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날로 당장에 저희들 앞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만 하고 순종치 않는 저들은 끌어다 죽이라.

누가복음 19 : 27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심판은 비단 유대인 뿐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적 형벌을 믿음으로 형벌이 면제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천신지를 얻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영원히 상실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 :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 :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13 :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마태복음 13 : 50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